

말문 원고

2018049708 일본학과 심유빈

저는 예술작품이 아닌 전자제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과학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라즈베리파이라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손바닥만 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 어째서
내 인생의 전환점인가? 이 손바닥만 한 게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갑니다.

한창 수능 공부로 힘쓰던 고3 시절 공부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든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러 불편함 중에서도 크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폰 저장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아이폰용 usb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다가 개인이 만들어 쓸 수 있는 서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 서버를
만들어두면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음악이나 영상, 사진 같은걸 넣고
꺼내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개인 서버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집에서 컴퓨터 한 대를 계속 돌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보자 했더니 집에 남는
컴퓨터도 없고 그 전기 많이 먹는 컴퓨터를 24시간 내내 돌리기엔 전기세도
너무 아깝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이
라즈베리파이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소형 컴퓨터라 성능이 크게 좋진 않지만 어차피 서버로 쓰이는
컴퓨터는 성능이 크게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전기를 스마트폰 충전기로 공급받으니 전기세도 많이 들것 같지 않아서 좋겠거니
싶었죠.

원래는 영국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만든 컴퓨터인데 작고 쓰임이 많아서
외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야
중에서 서버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서버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런 까만 창에 구글링해서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명령어를 치며 요래 저래 만들면서 에러가 뜬다면 검색해서 해결하고 하다가 막히면 다시 갈아엎고 처음부터 해보고 하다보니 어찌어찌 서버를 구축해서 토렌트도 받고 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스트리밍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3까지만 해도 꿈이 그저 무역회사에 취직해 해외영업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라즈베리파이 덕에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가 소프트 학과로 다중전공을 해서 본 전공인 일본학과와 연계해 일본 IT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지금으로써의 목표이자 꿈입니다.